



Perception, 172x136x10.16cm, steel plate, wood, wir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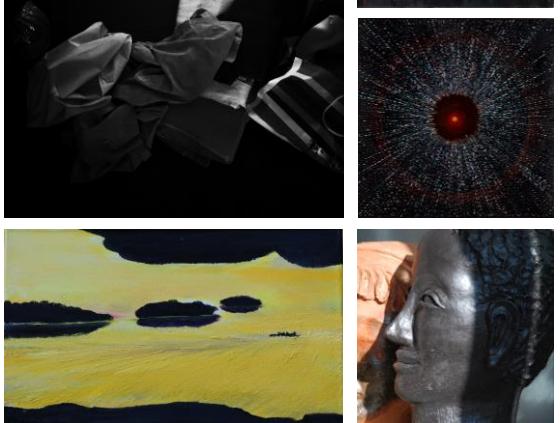
**HIJO  
NAM**

CATALOG\_V01\_M01





When I express truth  
through art,  
I finally become  
myself at last



HIJO NAM STUDIO 1 - US

CATALOG\_V01\_M03



HIJO NAM STUDIO \_ KOREA



한국에 있는 나의 작업실은 논두렁 밭두렁 사이에 웅푹 들어가 있는 작은 농가주택이다. 우사로 사용되었을 법한 큰 창고가 달려있어서 여러가지 많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일하는 나에겐 안성맞춤이다. 또한 내 작업실은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숨을 쉬듯 계절의 순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들판이 꽁꽁 얼어 있거나 눈에 뒤 덮여 있을 땐 오히려 땅속의 뜨거운 숨소리가 느껴질 때도 있다. 들풀들이 뾰족뾰족 연두빛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의 생명력, 짙푸른 성하, 끝날것 같지 않은 무덥고 습한 기온…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겐 결코 쉽지 않은 수많은 이유와 조건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Rhythm 2, Free installation, 205x100cm, Brass, Wood, Copper Wire, 2023

2012년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의 전시… 절실했고, 간절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전력을 다해 준비하였다. 제대로 된 작업장이 없어서 커다란 소나무 밑에서 일하던 중 무엇인지 스물거리고 느낌이 이상해서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송충이들이 주변에 내 몸에 머리에 마구 붙어 있었다. 그나마 비가오면 비닐하우스안에서 일을 할 때도 있었고, 상가에 있는 작업실에서 열중하다가 상가 문이 닫혀버려서 바닥에 종이박스를 펴고 잠을 잘 때도 허다했다.

그 해 7월에 예술의전당에서 내 전시가 열렸을 때 때마침 1층에서는 루부르전을 전시 중 이였고 그 많은 관객들이 2층 나의 개인전시회도 들러 주었다. 작품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여 마케팅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 내 전시에는 1층을 보고 들른 관객들이 대다수 였지만, 그래도 나는 보았다. 내 전시에 잠시나마 와준 수많은 관객들이 크게 감동하고 기뻐하던 모습을… 그때의 감동이 지금까지 작가로서 노력하고 정진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



2012 서울 예술의전당에서의 작품 이미지들을 미국의 교수님들 그리고 예술하시는 지인들께 보여드렸다. 작품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였고 바로 뒤이어 맨하탄 전시를 여러 곳에서 하게 되었다. 그룹전으로는 맨하탄 첼시 뮤지엄, 뉴저지 아트프로젝트에서 기획하는 여러 명소에서, 그리고 맨하탄 텐리와 가바론 파운데이션에서 초대개인전을 앞다투어 하게 되었다. 프랫대학교 교수님이신 조이스폴리스티나, 로버트 모간, 조나단 굿맨, 아트인어메리카 편집장 리처드 바인, 그리고 한국에 인연이 많은 잔제이 칼리지의 탈리아 브로포콜로스 교수님 등 수많은 유명 교수님들과 평론가들의 찬사와 함께 관객들 또한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맨하탄 건물 사이에서 한시간 이상 줄을 서서 내 전시를 봐주러 와주었고, 이로 인해 그리스에서 나를 눈여겨보고 초대하였다.

CATALOG\_V01\_IS01

대자연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울림.  
주변의 소리 없는 소리.  
그렇게 영혼의 소리를 집중할 때,  
오랜 모진 세월에도 견뎌온,  
강한 인내로 버티어 온 그것들에게  
또 다른 새 생명을 주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Wisdom 1, 68.5x193x65cm, Meta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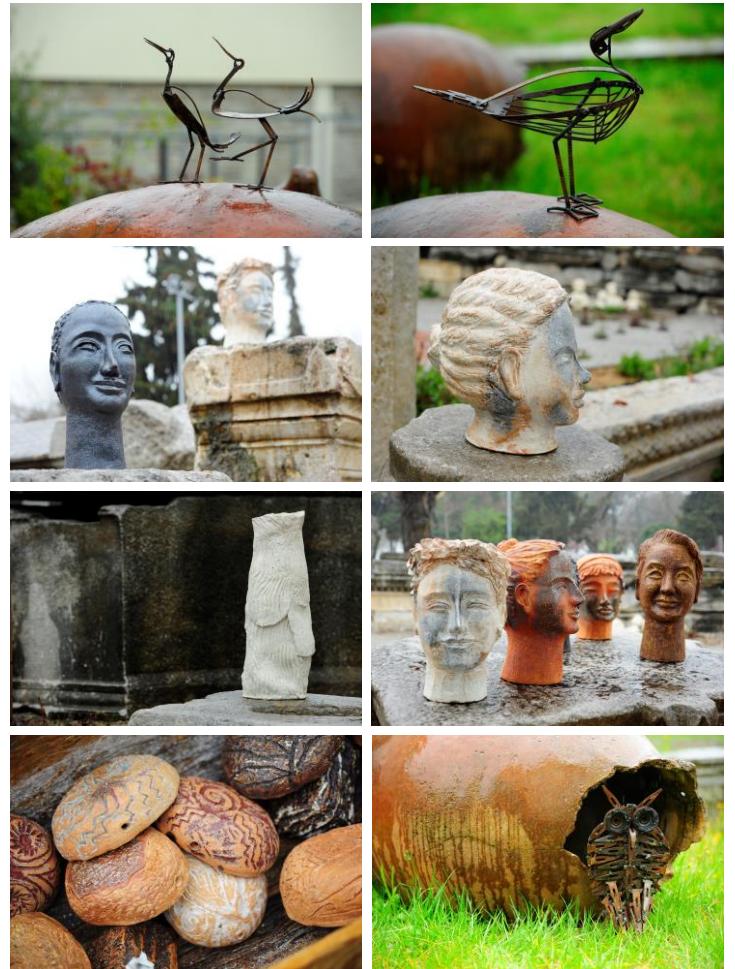
아테네에서 테살로니키 그리고 크레타 섬 등 그리스 대표 미술관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시계약이 바로 바로 이루어졌다. 뉴욕과 서울을 오가는 중에도 나는 쉼 없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스 로마신화들을 다시 찾아 읽고, 뉴욕MET, 영국 내셔널 뮤지엄, 베를린 뮤지엄 등 틈틈이 답사하며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작품을 구상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전이나 유적지를 찾아 답사하면서 서구문명의 뿌리부터 현대 삶의 속 까지 깊은 인간애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술에 있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면서 나는 다시 미친듯이 작업에 몰두했다. 철판을 두드리고 용접하고, 나무를 자르고 깎고, 도자기를 굽고, 그림을 그리면서 동양작가의 시선으로 그들을 이해하려 하였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여 만들어내는 과정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지만 그 시간은 어느때보다 행복했다.



2015 Archaeological Museum of Thessaloniki

2015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Crete

2015 House of Cyprus, Athens

2015 Donopoulos International Fine Art

HIJO  
NAM

Love and Sacrifice 1, Free installation, Bamboo, Sand, 2017

자신을 벗어나야 비로소 또 다른 자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난 내 고유의 직관적이고 자유로운 예술성에 도전하며 내 존재에 더 깊은 확신을 가진다.  
 영혼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욕망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 Summer of 2011

"From that year on, I began expressing my art on old sheets of scrap metal"



Meteora 3, Mixed Media on Scrap Metal, 139.7x90cm, 2015



동네 근처에 있는 상가 2층에 조그마한 창고 같은 작업실을 쓰고 있었을 때였다. 상가를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낡고 오래된 철판이 세워져 있었다. 어느 날 상가를 들어가던 중에 우연히도 그 철판에서 세월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위에  
열을 가하고  
함마로 두들기고  
드릴로 구멍을 내고  
용접을 하고  
색을 칠하고

내가 하고 싶은 다양한 것을 하기 시작했다.

# sculpture

A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CULPTURE CENTER

## Hijo 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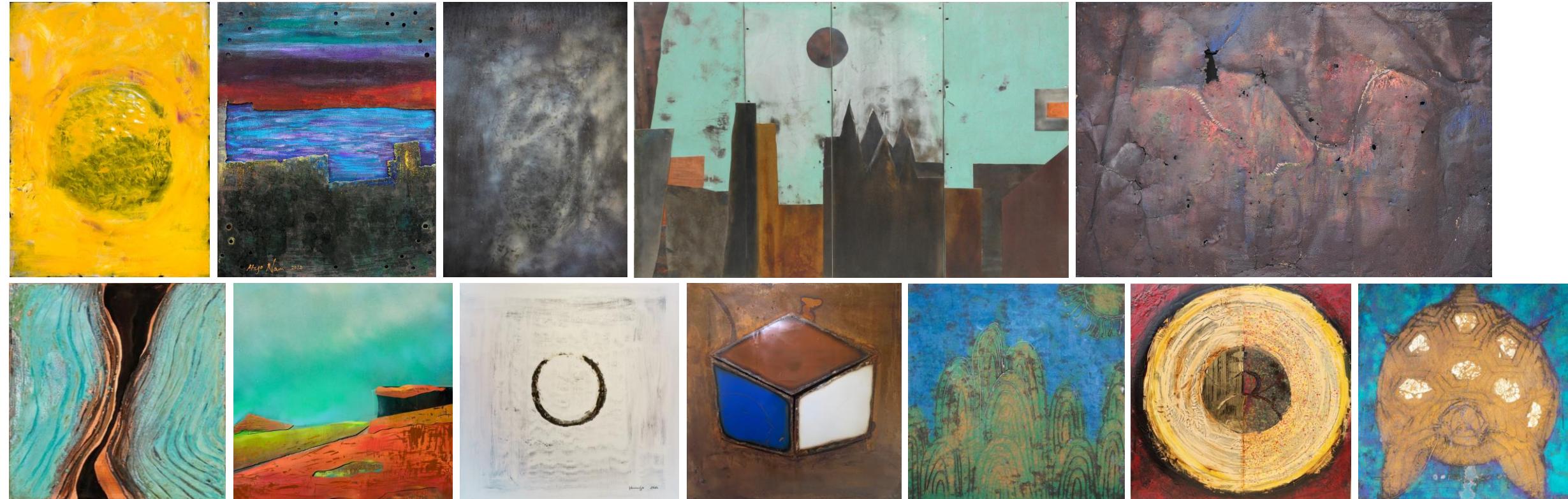
June 1, 2013 by Jonathan Goodman

### New York

#### Tenri Gallery

Hijo Nam, a Korean-born artist living in the New York area, recently put on a strong show of sculptures and low reliefs animated by her Buddhist beliefs. Interestingly, much of the integrity of these works stems from their individual orientation, in which the inspiration changes from piece to piece rather than following a path of serial repetition. As a result, each piece feels like it is driven by its own necessity, which results in noticeable variations in form. It isn't that the works contrast vastly in appearance—many are made with oxidized, rusty steel—but one senses that Nam's conception for each individual sculpture is a one-off meditation on emptiness, time, and the inherent gravitas of materials. Her work compels us to think—indeed, to meditate—on the innate messages contained in surfaces that appear to have been worn down by time. Nam's lyrical sensibility finds expression in the use of found materials. In *Cylindrical Views* (2012), an oxidized steel cylinder, decorated with dark paint, renders the moon, the sea, and other elements taken from nature. ...see the entire review in the print version of June's *Sculpture magazine*.

한국계 예술가인 HIJO NAM은 뉴욕지역에서 활동하며, 최근에는 그녀의 불교 신념을 바탕으로 한 조각과 얇은 릴리프 작품의 강렬한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들의 많은 무결성이 각 작품의 개별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직렬적인 반복의 경로를 따르는 대신 각 작품마다 영감이 변화하는 개별적인 방향성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 각 작품은 자체적인 필요성에 기반하며 형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작품들이 외관상 크게 대조되지는 않지만 산화된 녹이슬은 철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HIJO NAM의 각 개별 조각에 대한 개념은 무‘無’ 와 시간 그리고 재료에 내재된 고유의 중력에 의한 명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녀의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상하게 만듭니다. 시간에 의해 닳아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표면에 포함된 선천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Blue Moon Light 2, 207x147cm, Mixed Media on Steel Plate, 2017

세월이 흘러 남편 형제들도 모두 가정을 이뤄 떠나고, 나는 불혹의 나이에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에 들어가 학사, 석사를 마쳤다. 아이들 유학 시키며 잡념 없이 내 공부에 몰두했다. 그 세월 동안에도 나는 늘 달과 함께였다. 허드슨강 넘어 뾰족뾰족 한 건물들 끝에서도, 서울의 남산 위에서도, 지리산과 록키마운틴 위에서도, 아테네 신전과 북경의 소란한 도심 위에서도, 광활한 몽골 평원 위에서도… 달빛은 고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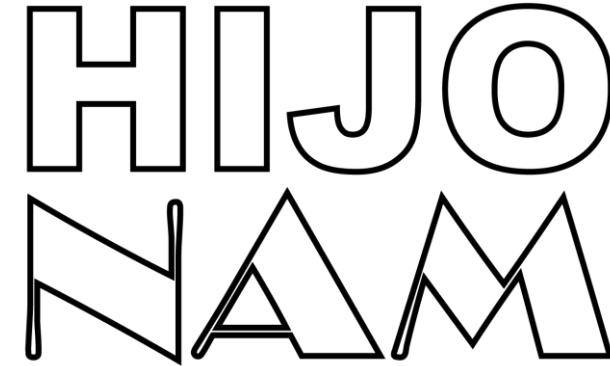
달은 산과 구름 위를 넘나들고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비친다.  
물이 흔들리면 달도 흔들린다.

그러나 고개 들어보면 달은 여전히 고요하다.

HIJO  
NAM



Cycle of Nature 4, 100 x 100cm, Oil on Wood Kettle Lid, Wagon Wheel, 2022



스물둘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호된 시집살이를 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자리잡기 시작한 우리의 신혼집은 남편 형제들 6남매와 거기다 사촌형제들까지 시골 식구들이 한 사람씩 모여들어 나중에는 포개어 잘 정도로 가득 찼다. 그 시절 나는 몸빼 바지를 입고 새벽시장에서 장을 보아 가며 아침저녁으로 식사 시간대가 모두 다른 밥상을 15년도 넘게 차려냈다.

그때는 늘 달을 보며 기도했다.

“이젠 혼자 사는 것이 무섭다” 하시며 어머니도 서울로 오셨다. 어머니는 손수 배틀로 짠 광목에, 직접 기른 목화솜으로 빵빵하게 채워 만든 솜이불 두 뭉치 그리고 커다란 광주리와 김장 다라이를 가져오셨다. 그 큰 이불 뭉치는 책상 위로, 냉장고 위로, 장롱 위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몇 해를 옮겨 다니다가 결국 시누이가 시집갈 때 얇고 예쁘게 변신하여 혼수로 실려 나갔고, 그 후 시누이 딸 시집 갈때 마저 실려 나갔다. 광주리와 김치 다ライ는 이사때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보이도록 벽에 큰 못을 박고 손수 걸으셨다. 서울의 아파트로 이사 가서도 여전히 어머니는 그 두 물건을 벽에 제일 먼저 걸으셨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광주리와 다라이가 걸려있던 자리에, 나는 수레바퀴에 어머니가 쓰시던 나무 솔뚜껑을 뒤집어 그림을 그려 걸었다.



Journey 18, Fabric Collage on Canvas, 91x120cm, 2023



Journey 17, Fabric Collage on Canvas, 91x120cm, 2023

늦은 나이의 교육과정속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보니 40대 후반이 되었다. '지금 한국에 가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겠는가' 한국 미술계는 나에게 학연·지연의 불모지대니 차라리 뉴욕에서 경력을 더 쌓는 편이 나을 듯했다. '그래,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러나 세월만 한 해 두 해 훌러가고 내 작품을 보여줄 기회조차도 얻기 어려웠다. 전 세계 미술계가 젊은 작가들이게만 집중되고 나에겐 영원히 기회도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들기 시작했다. 내 작품을 보고 좋다며 전시기획을 하려다가도 실제 내 나이를 알게 되면 "너 나이가 그렇게 많았어?"하는 것이었다.

그림을 그리다가 울고, 밥을 먹다가도 울었다. 자다가 베개가 축축해서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치고, 모든 게 슬프게만 느껴져 울고 또 울었다. 그러다 문득 울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왜 이렇게 울고만 있지? 욕심이 많아서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러는 거 아닌가…' 그 순간 나는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듯 뚝 그치고, 다시는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자 조용히 그림에 집중할 힘이 생겼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재능 봉사를 시작했다. 내가 뒤늦게 그림을 시작한 만큼 어른이 되어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함께 다니면서 재료 사는 것부터 화판을 짜고 그림을 완성하여 걸기까지 모든 과정을 성심성의껏 지도했다. 처음엔 겨우 3~4명이던 회원이 25명 이상으로 늘어 스튜디오가 가득 찼다. 젊었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꿈을 간직만 한 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인생들, 각자 다른 살아가는 방식들. 내가 본 희생과 진실한 모습들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Cycle of Life 6  
107x148cm  
Handmade Paper, Hemp String, Linen  
2017



Cycle of Life 5  
107x148cm  
Handmade Paper, Hemp String, Linen  
2017



Cycle of Life 7  
107x148cm  
Handmade Paper, Hemp String, Linen  
2017



Cycle of Life 4  
107x148cm  
Handmade Paper, Hemp String, Linen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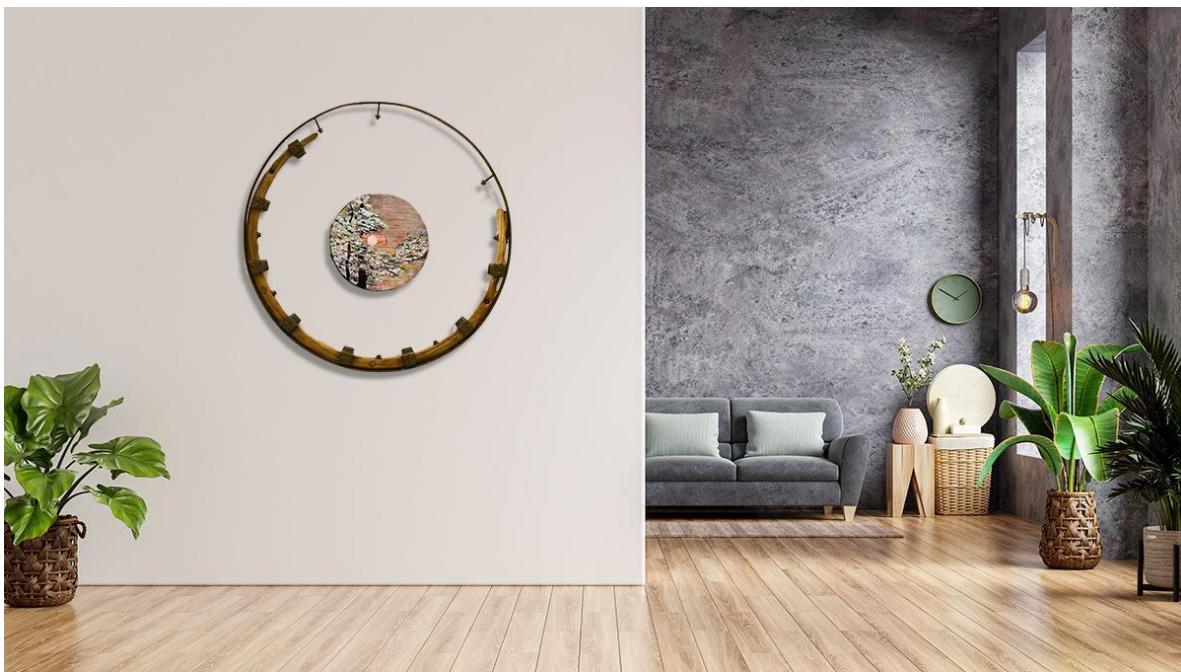
# CYCLE OF LIFE



The Big Dipper 4, 50x50cm, Korean Lacquer, Mother-of Pearl on Metal, 2017



Omega Point 2, 50x28.95cm, Korean Lacquer, Hemp Cloth, Glutinous Rice, 2018



**HIJO**  
**NAM**

24

67

13

Solo Exhibition

Group Exhibition

Award

## SOLO EXHIBITIONS

2023	'Origination, Tracing threads of creation', Kwanhoon Gallery 'Hijo Nam: Condensed Eternity', Space 776 Gallery	Seoul, Korea Soho, NY
2022	'Evoking the Elements', Saphira & Ventura Gallery 'Side by Side' Dorah SV Gallery, Giardini Venice Biennale 'Hijo Nam', Art & Law 'Destiny', White Hall Gallery 'Desire', Art Continue Seoul	New York, NY Venice, Italia New Jersey, NY Seoul, Korea Seoul, Korea
2020	'Likeness Not Sameness', Palais de Seoul	Seoul, Korea
2019	'Along the Grain', Dosol Art Center	Seoul, Korea
2017	'Hijo Nam: Contemporary Shaman', Today Art Museum	Beijing, China
2015	'Hijo Nam: In Dialog with Greek History', Archaeological Museum of Thessaloniki 'Green Sprit', Donopoulos International Fine Art 'Objets Trouv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Crete	Thessaloniki, Greece Thessaloniki, Greece Crete, Greece
2013	'Cycles', Gabaron Foundation 'Intricate Strata', Tenri Gallery	New York, NY New York, NY
2012	'The Sound of Soul', Hangaram Gallery in the Seoul Art Center 'Cycle of Trace', Insa Art Center	Seoul, Korea Seoul, Korea
2011	'Nostalgia in Peaceful Movement', Riverside Gallery 'Cityscapes', Pacific Fine Art	Hackensack, NJ New York, NY
2009	'Color in Nature', Intermezo Gallery of Bergen PAC 'Shadow & Light', White Hall Gallery	Englewood, NJ Seoul, Korea
2008	'Opening Atelier' North Bergen Art House 'Figures in Nature', Riverside Gallery	North Bergen, NJ Hackensack, NJ
2007	'Flowers & Landscapes', KCC Gallery	Englewood, NJ

## AWARDS

2022	Grand Prize by 'Korean people who made 2022 shine', Seoul, Korea 제42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 상,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2022	Best Artist of the year by Korean Association of Art Critics, Seoul, Korea 2022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대상, 언론인 협회, 한국 프레스센터
2022	Grand Prize by the 5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제5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문화예술공헌 대상, 대한민국 국회
2020	Grand Prize by the 52 <sup>nd</sup> Shininten International Competition, Tokyo, Japan 제52회 일본 국제 공모전 신원전 대상
2019	Gold Prize by the 51 <sup>st</sup> Shininten International Public Collection, Tokyo, Japan 제51회 일본 국제 공모전 신원전 금상
2019	Gold Medal by the 41 <sup>st</sup> International H.M.A. Art Festival, Seoul, Korea 제41회 국제 HMA 예술제 국제 금상
2018	Honorary Artist by The West Lake Festival in Hangzhou, China 중국 절강성 예술문화 추진위원회 감사장 수여
2016	Minister of Culture Award, Cairo, Egypt 이집트 문화부 장관상
2012	Congeniality Award from Jeremiah T. Healy, Mayor of Jersey City, NJ 미국 뉴저지 주 미술공로표창 및 금메달
2012	Special Selection of the 40 <sup>th</sup> Gusang Grand Art Competition, Seoul, Korea 제40회 구상전 특별선정
2011	Special Selection of the 39 <sup>th</sup> Gusang Grand Art Competition of The Figurative Art Competition of Korean Fine Arts 제39회 구상전 한국미술형상예술대회 특별선정
2010	Gold Medal of the 16th Mathdaz International Art Competition Japan, Tokyo, Japan 제16회 일본 마쓰다즈 동경미술대전. 금상
2009	Final Winner and featured artist and the front page of the website 'myartspace.com' 미국 '마이아트 스페이스' 웹사이트 첫 페이지 특집 아티스트 올해의 최종 우승자